

광주FC, K리그1 잔류 확정...창단 첫 A그룹 진출



프로축구 K리그1 승격 팀 광주FC가 20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2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12분 펠리페의 선제 결승 골과 후반 28분 두현석의 추가 골을 쥘어 성남을 2-0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광주FC는 2021 K리그1 잔류를 확정지었다. 사진은 경기 후 선수들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K리그1 22R 성남FC에 2-0 승리...파이널 A 그룹서 순위 경쟁



광주FC가 2021시즌에도 K리그1에서 싸운다. 광주는 2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2020 K리그1 22라운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펠리페와 두현석의 골을 앞세운 광주는 최종전까지 치열하게 전개되던 '6위 싸움'에서 승자가 되며, 강원FC와 FC서울을 따돌리고 파이널 A 그룹(1-6위)에서 남은 시즌을 보내게 됐다.

3년 만에 K리그1으로 돌아온 광주의 창단 첫 파이널라운드 A 진출로 박진섭 감독이 첫 번째로 내세웠던 '잔류' 목표도 동시에 달성됐다.

시즌 개막전 상대로 성남에 0-2패를 기록했던 광주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앞서 1위 울산, 2위 전북, 3위 상주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승부를 펼치며 저력을 발휘했던 광주는 초반부터 성남을 강하게 압박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상대 진영에 진입해 수비진을 교란한 광주는 2분 만에 윌리안을 앞세워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다.

전반 11분 이요정이 띄운 공을 펠리페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아쉽게 골대를 비껴갔다. 아쉬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이어진 공격에

서 펠리페가 왼발로 골대를 가르면서 선제골을 장식했다.

골키퍼 이진형이 몇 차례 성남의 공격을 잘 차단 해주면서 1-0에서 후반전이 시작됐다.

후반에도 광주가 성남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박진섭 감독은 후반 21분 엄원상을 대신해 두현석을 넣으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교체 카드가 성공했다.

2분 뒤 역습 상황에서 골키퍼 이진형이 양동현의 슈팅을 막은 뒤 바로 광주의 반격이 이뤄졌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윌리안이 길게 올려준 공을 잡은 두현석이 그대로 공을 몰고 올라가 골키퍼를 마주한 채 오른발로 골대를 갈랐다. 두현석의 시즌 1호골과 함께 윌리안의 시즌 3번째 도움이 기록됐다.

윌리안은 이어진 공격에서 매서운 슈팅까지 날리며 경기를 압도했다.

그리고 수문장 이진형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무실점으로 성남을 봉쇄하면서 2-0으로 경기를 끝냈다.

비디오 판독 논란 속에 상주전 0-1패배를 당하며 7경기 연속 무패행진이 중단됐던 광주는 6승 7무 9패(승점 25)로 정규시즌 일정을 마감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6위였던 강원도 수원에 1-2로 역전패 하면서 승점 24로 광주에 밀렸다

7위였던 서울은 대구FC와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광주와 나란히 승점25(7승 4무 11패)가 됐지만, 다득점(광주 28, 서울 19)에서 승자가 갈랐다.

창단 10주년을 맞은 광주는 초반 부진을 털고 사상 첫 파이널 A 그룹에서 강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광주의 K리그2 우승에 이어 창단 첫 파이널A까지 이끈 박진섭 감독은 "오늘 경기만 바라보고 모든

걸 쏟아내자고 선수단에 전달했다. 선수들이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정말 어려운 걸 해낸 선수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팀의 경기까지 지켜봐야 했던 마지막 승부, 박 감독은 오로지 광주 경기에만 집중했다.

박 감독은 "다팀의 결과까지 신경 써야 하기에 정신적인 부분에서 무장이 잘 돼 있어야 한다고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며 "이 경기에 집중하고 싶었다. 타 팀의 결과를 인자하지 않았고, 무조건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결과는 경기 종료 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리그 상위 6개 팀이 모여있는 곳인 만큼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강한 팀들을 마주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는, 다크호스 같은 팀이 되겠다"고 파이널 A로 향하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4경기만에 승...4위 점프

K리그2 20R FC안양에 2-1 승



전남드래곤즈가 4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하며 4위로 점프했다.

전남은 지난 19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0 K리그2 20라운드 FC안양과의 원정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상대의 자책골에 이은 에르난데스의 결승골로 한 번에 승점 3점을 더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4회에도 최형우의 안타와 나지완의 볼넷이 이어졌지만 후속타가 불발됐다.

선제골은 안양이 가져갔다.

전반 17분 황문기에게 슈팅 기회를 허용한 게 아쉬웠다. 페널티지역 바깥 왼쪽에서 황문기의 패스를 차단했지만, 뒤로 흐른 공을 잡은 황문기가 수비수 사이로 오른발로 중거리슈팅을 하며 전남 골대를 갈랐다.

전반 27분 전경준 감독이 정호진을 빼고 에르난데스를 투입하면서 일찍 승부수를 띄웠다.

그리고 연달아 코너리 상황을 연출한 전남이 마침내 '행운'을 더해 골문을 열었다. 코너리 상황에서 김현욱이 올린 공이 문전에서 경합하던 안양 박요한의 뒷머리를 맞고 자책골이 됐다.

1-1로 전반을 마감한 전남이 후반 시작과 함께 기분 좋은 골을 만들었다.

전반 교체해 들어간 에르난데스가 주인공이 되었다.

후반 4분 이유현의 논스톱 슈팅이 골키퍼 양동현의 선방에 막혔지만, 골키퍼가 쳐낸 공을 에르난데스가 바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경기를 뒤집었다.

이후 전남의 '짚물 수비' 진이 실점 없이 남은 시간을 지키면서 2-1 승리를 완성했다. 전남의 시즌 첫 역전승이다. 승리는 지난 16라운드 충남아산전 2-0 이후 4경기만이다.

승리로 6경기 연속 무패를 달린 전남은 6승 11무 3패 승점 29점을 기록하며 4위로 올라섰다. 3위 대전 하나시티즌과는 승점 1점 차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기록 못이은 김광현 피츠버그전 4실점...25이닝 무자책 마감

'KK' 김광현(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의 호투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김광현은 20일 열린 2020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5.1이닝 6피안타(2홈런) 4탈삼진 1볼넷 4실점(4자책점)을 기록했다.

그는 메이저리그 데뷔 후 가장 많은 투구 수 103구를 던지며 역투했지만, 데뷔 후 한 경기 최다 실점, 최다 피안타, 최다 피홈런 기록을 썼다. 아울러

25이닝 연속 무자책점 행진도 끝났다.

세인트루이스는 상대 팀 선발 미치 켈러를 상대로 6회까지 득점은커녕 단 한 개의 안타도 생산하지 못했다.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은 김광현이 내리건 7회에 폭발했다. 상대 팀 선발 켈러가 교체되자 뒤늦게 맹타를 휘둘렀다. 4사구 3개로 무사 만루 기회를 잡은 뒤 타일러 오닐의 좌중간 2타점 적시 2루타 등으로 경기를 뒤집고 5-4, 3연승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팀 연패 못끊은 류현진 필라델피아전 2실점...51일만에 패전

팀을 연패 수렁에서 구출하라는 특명을 안고 등판한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집중타를 견디지 못하고 아쉽게 시즌 2패(4승)째를 당했다.

류현진은 20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벌인 2020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서 6이닝 동안 안타 6개를 맞고 2실점 했다. 삼진 8개를 낚았고 평균자책점은 3.00을 유지했다.

류현진은 1-2로 뒤진 7회 윌버 폰트에게 배턴을 넘겼다.

토론토는 1-3으로 쪼여 6연패 늪에 빠졌고, 류현

진은 시즌 두 번째 등판이던 7월 31일 워싱턴 내셔널스전 이래 51일 만에 패전 투수가 됐다.

류현진은 올해 6번째 필리시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달성했지만, 타선 지원을 못 받아 불운했다.

토론토 타선은 필라델피아 마운드에 단 2안타로 묶였다. 그 중 하나가 5회 선취점을 낸 8번 타자 1루수 트래비스 쇼의 우월 솔로 홈런이었다.

류현진은 3회까지 매 이닝 삼진 2개씩 속아내는 등 4회까지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다. /연합뉴스

호랑이, 5위 지키기 쉽지 않네

한화에 3-11 패하며 다시 반계임차 6위로 하락



KIA 타이거즈가 하루 만에 5위 자리를 내줬다.

KIA가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3-11로 패했다.

전날 3연승을 달리며 4연패에 빠졌던 두산을 끌어내리고 5위로 올랐던 KIA는 하루 만에 6위로 복귀했다. 이날 LG를 상대한 두산은 5-5로 맞선 9회말 박세혁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하면서 KIA와 자리를 다시 바꿨다.

중반까지는 팽팽한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다. KIA 선발 김기훈이 1회 첫타자 정진호에게 볼넷을 허용하고, 3번 노시환에게 우측 2루타도 맞았지만 도루 저지 등을 묶어 실점 없이 1회를 넘겼다.

2회 2사에서 최진행의 안타와 이성열의 볼넷, 그리고 송광민의 적시타로 1점을 내준 김기훈은 3회와 4회에도 주자는 내보냈지만 실점 없이, 4이닝 1실점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1-2회 한화 선발 김민우의 호투에 막혀 연달아 삼자범퇴를 기록한 KIA 타자들이 3회 김태진(2)의 내야 안타로 침묵을 깬다. 유민상의 연속안타까지 나왔지만 박찬호가 보내기 번트를 완수하지 못했다. 번트 실패 뒤 박찬호가 강공을 시도했지만 우익수 플라리로 주자들이 움직이지 못했다. 최원준의 볼넷 뒤에는 김선빈의 병살타가 나왔다.

4회에도 최형우의 안타와 나지완의 볼넷이 이어졌지만 후속타가 불발됐다.

5회 두 팀이 점수를 주고받았다. 김기훈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장현식이 대타 강경학에게 우측 2루타를 내줬다. 삼진과 3루 땅볼로 투아웃은 채웠지만 하주석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0-2가 됐다.

KIA도 5회말을 선두타자 유민상의 2루타로 열었다. 박찬호가 중견수플라이로 물러났지만 최원준의 내야안타 뒤 김선빈이 우전안타로 타점을 올렸다. 터커도 희생플라이를 날리며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7회 KIA 볼펜이 흔들리면서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

장현식에 이어 나온 이준영이 정진호에게 좌중간 2루타를 맞았다. 강경학의 희생번트로 1사 3루, 투수가 홍상삼으로 교체됐다.

볼넷이 나오면서 1사 1-3루가 됐고 반즈의 희생플라이로 다시 한화가 리드를 잡았다.

이후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기 위해 KIA 볼펜에 두 명의 투수가 더 투입됐다. 홍상삼이 볼넷과 적시타를 맞아 좌완 김명찬이 출격했다. 하지만 김명찬이 안타와 사사구 2개만 남기고 강판됐고, 양승철이 타자일순해 7회 두 번째 타석에 선 정진호를 2루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겨우 이닝을 끝냈다. 점수는 2-6까지 벌어졌다.

KIA는 8회와 9회에도 실점하면서 '하루 5위'에 그쳤다.

한편 터커는 2-8로 뒤진 8회말 무사에서 강재민의 초구 직구를 공략, 시즌 29호포를 기록했다. NC 나성범과 홈런부문 공동 3위에 올랐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김여울 기자 wool@